

# 2016. 10. 19.(수) 조간 언론보도 스크랩

서울경제

2016년 10월 19일 (수)  
31A면 전국

## 경기도 22일 '평화누리길 자전거 투어 in 김포' 개최

경기도는 22일 김포 평화누리길 3코스 한강철책길 일원에서 '평화누리길 자전거 투어 in 김포'를 개최한다. 이번 자전거 투어는 예부터 토양과 물, 기후 모두 최상의 조건으로 유명한 김포 DMZ 일원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홍보하는 게 목적이다. 투어 참가자들은 전류리포구 인근 연병장에서 출발해 석탄배수펌프장, 북한이 바라다 보이는 한강변 철책선길을 거쳐 후평리 철새도래지를 지나 다시 전류리포구 인근 연병장으로 돌아오는 약 18km의 순환형 단일코스를 달리게 된다.

/윤종열기자  
9.3 X 5.4 cm

경기신문

2016년 10월 19일 (수)  
09면 지역

## 김포 평화누리길 3코스, 자전거 타고 씩씩~

### 22일 '자전거투어 in 김포' 개최 18km 완만한 코스 남녀노소가능

경기북부 DMZ 일원 한강 철책길을 자전거로 달리며 평화를 기원하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된다.

경기도는 오는 22일 오전 8시 30분부터 김포 평화누리길 3코스 한강철책길 일원에서 '2016년도 평화누리길 자전거 투어 in 김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자전거 투어는 그간 과주 임진각 일원에서만 열어오던 행사를 김포지역에서 특별 개최함으로써 평화누리길을 찾는 방문객들의 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예부터 토양과 물, 기후 모두 최상의 조건으로 유명한 김포 DMZ 일원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홍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전류리포구 인근 연병장을 출발해 석탄배수펌프장, 북한이 바라다 보이는 한강변 철책선길을 거쳐 후평리 철새도래지를 경유해 다시 전류리포구 인근 연병장으로 돌아오는 약 18km의 순환형 단일코스를 달리게 된다.

이 코스는 높낮이가 완만해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자전거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명소다.

코스 인근의 주요명소로는 ▲수도권 최대 철새도래지인 '후평리 철새도래지' ▲한강의 최북단 어장인 '전류리포구' ▲북녘 땅을 바라 볼 수 있는 '애기봉 전망대' ▲차(茶)의 아버지 한재 이목 선생의 위패를 모신 '한재당' 등이 있다.

또 평화누리길 사진 전시회, 엽서쓰기, 포토타임, 경품추첨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의정부=김홍민기자 wallace@

11.8 X 10.0 cm

# 연천군 '나라 사랑 DMZ 체험캠프' ... 154개팀 700명 참가

## 21~23일 오토캠핑장서 개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21~23일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오토캠핑장에서 '나라 사랑 DMZ 체험캠프'를 연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경기북부 지역의 체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154개 팀 700여 명이 참가한다. 행사는 '캠핑' '비무장지대(DMZ) 체험' '축제'를 결합한 형태로 2박3일간 열린다.

'공정 캠핑왕을 찾아라' '연천 농특산

물 큰 장터에서 놀자!' 'DMZ 어디까지 가봤니?' 'DMZ 버스킹'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공정 캠핑왕을 찾아라'는 연천지역에서 물건을 산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DMZ 어디까지 가봤니?'는 전국리 선사유적지, 태풍전망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평화누리길 등 연천지역 안보·문화 명소를 둘러보는 여행과 연천 농특산물 큰장터를 연계한 행사다.

나라 사랑 DMZ 체험캠프는 매년 두



차례 열리는 행사로, 다음 달 11~13일 같은 장소에서 2차 행사가 예정돼 있다.

조윤성기자

17.4 X 7.5 cm

## 22일 평화누리길 자전거투어

경기도는 오는 22일 김포 평화누리길 3코스 한강철책길 일원에서 '2016년도 평화누리길 자전거 투어 in 김포'를 개최한다.

이번 자전거 투어는 그간 파주 임진각 일원에서만 열어오던 행사를 김포 지역에서도 특별 개최, 김포 DMZ 일원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홍보하는데 목적을 뒀다.

부대행사로 평화누리길 사진 전시회, 엽서쓰기, 포토타임, 경품추첨을 진행하고 참가자들에게겐 소정의 기념품과 간식 등도 제공한다.

/강상준·최현호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

5.7 X 8.3 cm